4. 남편과 아내

남편은 溫和(온화)*하면서 의롭게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柔順(유순)*하면서 올바르게 남편을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夫婦(부부) 사이에 예의와 恭敬(공경)*을 잃어버리지 않은 뒤에야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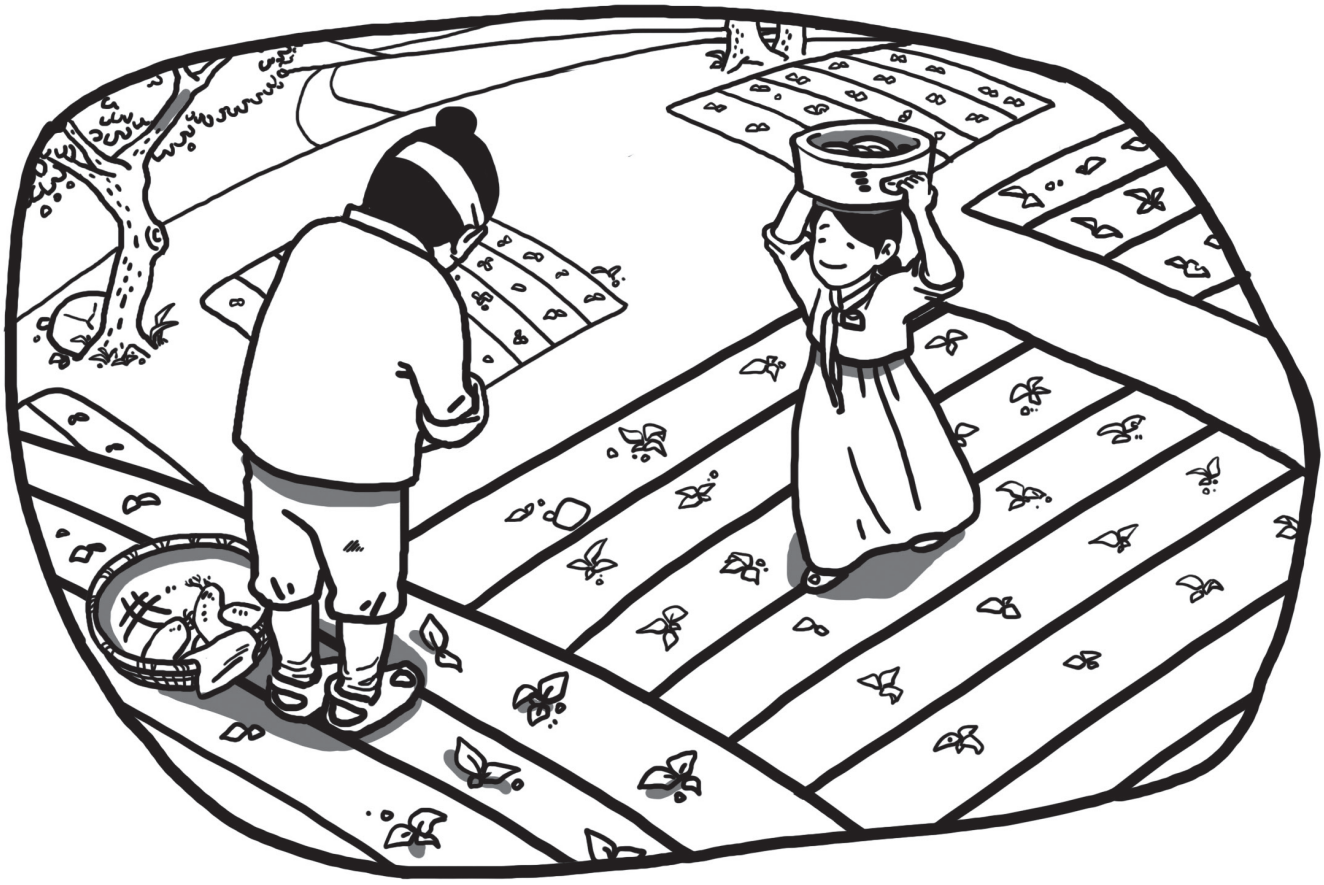
만약에 夫婦(부부)가 평소에 서로 거리낌이 없이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恭敬(공경)하고자 하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서로 조심하여 반드시 평소의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내가 만약 남편의 말과 행동이 정의로운 것을 본다면, 반드시 점점 믿고 순순히 따를 것이다. (『격몽요결』「거가장」)

옛날에 郤缺(극결)*이 밭에서 김을 매자 그 아내가 점심밥을 가지고 왔는데, 恭敬(공경)하여 서로 대하기를 손님처럼 하였으니, 夫婦(부부)간의 道理(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동몽선습』「부부유별」)

*溫和(온화) : 마음씨가 따뜻하고 인자함 *柔順(유순) : 마음씨가 부드럽고 온순함
*恭敬(공경) : 조심해서 공손히 섬김 *郤缺(극결) : 춘추전국시대 晉(진)나라의 대부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앞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혼인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夫婦(부부) 사이의 도리에 대하여 관심 자체가 없어서 알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개 男子(남자)와 女子가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그것도 자식을 낳고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좋아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서로 함부로 대하다가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夫婦(부부)의 도리를 알아야 하는데, 남편은 따뜻하고 인자하면서도 正義(정의)롭게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드럽게 대하면서 따르라고 했어요. 물론 오늘날은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따르는 일은 없겠죠? 남편과 아내 모두 상황에 따라 따뜻하게 부드럽게 正義(정의)롭게 하되 때로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따를 때도 있어야 해요. 집안일도 두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옛날이라고 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마치 손님이 된 것처럼 서로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이란 조심해서 상대를 공손히 섬기라는 뜻이에요. 곧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태도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참고로 하나 알아 둘 일이 있어요. 옛날 남편은 집안일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안주인인 아내가 도맡아 했지요. 물론 생활하는 공간도 아내는 안채에 머무르고 남편은 바깥사랑채에서 생활했죠. 당연히 남편은 집 바깥의 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夫婦(부부)의 역할을 안팎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도 夫婦(부부)의 다른 이름을 內外(내외)로 부르기도 해요. 오늘날은 굳이 그걸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아래의 □ 안에 알맞은 글자를 써 넣으세요.

   부부는 서로 □□ 하여야 한다.

2.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할 성격과 태도를 요약해 빈칸에 써 넣으시오.

구분	남편	아내
성격		
태도		

3. 앞의 글에서 왜 부부가 평소에 서로 거리낌이 없이 너무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부부가 손님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근거로 생각해 보아요.

4. '아내가 남편을 따른다'는 것이 오늘날의 입장에서 '남편도 아내를 따라야 한다' 로도 바꾸어 말할 수 없는지 비판해 보세요. 아내나 남편이 따를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5. 여러분은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각각 여러분에게 어떤 성격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빈칸에 써 보세요.

구분	성격 또는 태도
남편	
아내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지아비	며느리	화할	순할	옳을	바를	예도
한자	夫	婦	和	順	義	正	禮
음	부	부	화	순	의	정	예(례)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夫婦(　　) : 남편과 아내

나. 正義(　　) : 올바른 도리

다. 和順(　　) : 성격이 온화하고 순함

3. 다음 □안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을 쓰시오.

가. 결혼한 여자 : 婦人(□□)

나.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말 : 夫人(□□)

다. 예의에 관한 질서나 절차 : 禮節(□절)

라. 마음씨가 부드럽고 온순함 : 柔順(유□)

4.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夫道和義(□□□□)요 婦德柔順(□덕□□)이니라 : 남편의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우며 아내의 덕은 부드럽고 온순한 것이니라.

나. 內外有別(내외□별)이니 相敬如賓(상경여빈)하라 : 내외(부부)에는 분별이 있으니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라.

5. 다음 고사성어의 음을 써 보시오.

夫唱婦隨(　　) :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름. 가정에서 부부의 화합을 가리키는 말.

관련된 이야기

포선의 아내 소군

『소학』에 나오는 옛이야기에요.

중국 한나라 때 포선이라는 사람의 아내 환씨의 이름은 소군이에요. 포선은 일찍이 소군의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웠는데, 소군의 아버지가 포선의 사람됨을 높이 보고 그의 딸을 포선에게 시집을 보내며 사위를 삼았어요.

포선이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아내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또 함께 가져가는 재물이 무척 많았어요. 그것을 본 포선이 기뻐하지 않고 말했어요.

"당신은 부유하고 교만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익혔지만, 나는 가난하고 미천하여 그와 같은 예절을 감당할 수 없소."

라고 하자, 아내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선생(포선을 말함)이 덕을 닦고 검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모시게 한 것입니다. 이미 군자(포선을 높여서 하는 말)를 받들기로 했으니, 오로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포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뜻이오."

아내는 하인과 의복과 장식품을 모두 돌려보내고, 베(삼이나 무명 등으로 짠 옷감)로 만든 짧은 치마로 갈아입고 포선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 절하는 禮를 마치고, 물동이를 들고 나가서 물을 길어 오며 아내의 道理(도리)를 잘 행하니, 온 마을과 고을 사람들이 칭찬하였어요. 아내의 친정이 아무리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아내의 道理(도리)를 다해 남편의 뜻을 잘 따랐다는 이야기에요.

이야기처럼 옛날의 남편과 아내는 아무래도 남편이 중심이 되고 아내가 따르는 입장이었지만, 오늘날은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물론 서로 공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요.

관련 인성 가치	존중 배려